

01 교회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

우리 교회는 다국어로 번역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03 기획특집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훼방과 핍박을 받으며 순교의 피를 흘린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실상은 부요한 자' 라고 말씀하셨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

04 권능의 역사

하나님 권능으로 에이즈를 치료받아

인터넷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폐렴과 에이즈를 치료받은 미국 레오폴드 성도와 26년 된 건선 피부염을 치료받은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신 유순주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484호 2011년 6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 세계인의 필독서, 22개 언어로 발간된 『십자가의 도』

무수한 영혼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참 생명을 주고 있는 감동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

이재록 목사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이 책은 전 세계인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곳곳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은혜받은 주의 종과 성도들의 감사 편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책을 현장 목회에 적용하고자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발간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가정생활의 바탕인 가훈과 같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베트남어 판 『십자가의 도』가 발간됨으로 총 22개 언어로 출간, 유통되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어, 따갈로그어, 아랍어, 베트남어, 에스 토냐어, 우르드어, 이태리어, 인니어, 타밀어, 힌디어, 태국어, 핀란드어, 히브리어, 네팔어(사진). 이 밖에도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등 16개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아르메니아어, 이란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 중



이다.

이 책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가상 칠언에 대한 의미 등 구

원의 도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만 올바르게 알아도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 많은 것을 깨우쳐 하

나눔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뉴욕 주 상원의원 루벤 디아즈 박사는 "이재록 목사님과 같은 권능과 성경에 입각한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자를 본 적이 없다. 그분의 저서 『십자가의 도』는 내 삶은 물론 뉴욕 전역을 흔들었다. 이 책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전체를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국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에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했다.

스페인 누에바 비다 출판사 호세 리카르도 사장은 "이 책은 내가 읽은 책 중 성경에 입각한 가장 복음 주의적인 책으로 독자들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미국의 리차드 블레이크 박사는 아마존닷컴 서평에서 "이재록 목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시킴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다지게 해 준다"라며, "이 목사의 저술은 극히 성경적이며, 그의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세계성결센터' 개원

세계성결센터(사진)가 지난 5월 28일, 완공식을 가졌다.



미국 플로리다주 노스 포트시에 소재

한 이곳은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가 성결 복음과 만민 사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하 영상이 상영됐고, 이정호 장로가 축사와 개회기도를, 정구영 목사가 도서관 개관식 축사를 담당했다. 또한 이스라엘, 영국, 아프리카,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여러 지역에서 1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계성결센터는 정원과 연못, 산책로, 숲이 조성되어 있고, 건물 안에는 메인 홀과 기도 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부속 시설이 마련돼 있다. 향후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

들을 주제로 한 세미나, 초청강연, 심포지엄, 손수건 집회(행 19:11~12)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1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

기도제물연합회(지도교사 이희선 목사)가 지난 5월 29일 저녁예배 시 헌신예배를 드렸다.

회장 위성순 권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강사 이재록 목사는 '기도하는 자'(눅 2:36-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기도하는 자라 인정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선한 기도를 해야 한다. 둘째로 주를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셋째로 사랑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도제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헌신하는 일꾼들의 모임이다.

몽골 선교사 파송식 가져

몽골 선교사 파송식이 지난 5월 29일 저녁예배 시 본당에서 있었다. 파송되는 앙흐바야르 칸바타르 선교사는 몽골 울란

바토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성결 복음을 전하며 문서선교를 활발히 이를 계획이다.

그는 조국 몽골에 성결 복음을 전할 비전을 품고 2008년 2월 한국에 왔다.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20기 과정을 수료하고, MIS(만민국제신학교) 과정을 밟으며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혼육' 등 말씀을 무장해 왔다.

포토뉴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닛시 오케스트라(지휘 조관형 피택장로)가 지난 5월 31일 낮 12시 30분, 'Lunch Concert' (런치 콘서트)를 닛시 오케스트라실에서 열었다. 이날 닛시 오케스트라는 김한구 부지휘자의 지휘로 'Symphony No.1 Lv.Beethoven' (베토벤 심포니)을 연주했다.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나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요한계시록 2:8-9)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서머나는 소아시아 서쪽 헬메안 만에 있는 도시로, 신약시대에는 로마 식민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큐리오스)라고 불렀으며, 세상에는 오직 한 명의 황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 후 이곳에 이주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훼방과 핍박을 받았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해 순교자도 생겼습니다. 서머나에서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감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도 책망도 아닌 권면의 말씀을 들은 교회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은 주님께서 부활의 처음 되심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처음’이라 한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장차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인류에 대한 모든 구속사업이 끝납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게 되는

사람들 모두 주님의 공중강림과 함께 부활의 열매로 나옵니다. 물론 7년 대환난 중에도 이삭줍기 구원이 남아 있지만 주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는 마쳐지며 성령시대도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때가 바로 부활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롬 10:9).

2.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나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 겪는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주 안에 들어와서 겪는 환난은 믿음으로 통과할 때 결국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하늘나라에도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환난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받는 환난은 의를 위한 경우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혹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받는 핍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야외회를 가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후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니 가족이 서운해하고 핍박할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

니 자연스럽게 핍박은 사라집니다.

만일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핍박이 계속된다면 지혜롭지 못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충분하다 보니 때로 절제하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언행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만 지혜롭고 선하게 행한다면 얼마든지 핍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외에도 하나님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와 바울,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고 사랑받았지만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숭한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마 5:11~12).

다음으로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해 사단의 송사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빌 3:20). 이때부터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 법에 따라 순종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사단이 송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험 환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환난을 겪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것인 양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약 1:13). 사람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까닭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약 1:14) 하나님 법을 어기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므로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 해도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의 송사로부터 지켜 주실 수 없습니다. 결국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사망으로(약 1:15, 롬 6:23) 가는 자녀들이 징계를 통해셔라도 깨닫고 돌아길 수 있도록 사단의 송사에 따라 시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 히브리서 12:5~6에는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환난이 왔을 때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신속히 돌아켜 주님의 축복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환난을 당할 뿐 아니라 매우 궁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물질 축복을 받지만, 서머나 교회와 같이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직장에서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환경 탓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이 궁핍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겪는 것이므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핍박해도 더욱 선으로 대한다면 상대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결국에는 넘치는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외에 스스로 궁핍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찾아오기교회 새벽예배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스스로 궁핍함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같이 번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니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는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가장 부요한 분인데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고후 8:9).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주리고 머리 돌 곳조차 없어 광야에서 주무시는 등 가난한 길을 가심으로 친히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지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가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부요해집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빛 가운데 산다면 시험 환난과 궁핍이 올 수 없고 설령 온다 해도 신속히 물러갑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혼이 잘된 만큼 이 땅에서도 만사행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보다 부요한 것입니다.

3.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에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이 정착해 살았는데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 많은 기독교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의 유전과 율법의 틀과 의에 맞추어 예수님을 판단 정죄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지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일을 훼방하고, 단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 교회나 주의 종을 판단 정죄하거나 시기 질투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9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서는 이들을 향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 부르며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면 자칭 유대인일 뿐이며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두 드러납니다(마 13:49-50).

굳이 마지막 심판 날이 아니라 해도 그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진리를 좇아 사랑하고 화평하며 선한 말과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이와 반대되는 시기, 판단, 정죄, 미움, 분쟁 등이 나타난다면 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하며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무리를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단의 회'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고 기도의 불이 꺼지며 결국 부흥이 멈춥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단의 회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자리잡

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진리의 말을 듣고 별 생각없이 한두 마디 동조했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말이 결국 거저된 소문을 만듭니다. 온전히 악의 모습을 벗어 버리기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는 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악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입술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순간에도 단지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반대하는 말을 내면서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근히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별다른 생각없이 함께 대화하다가 한두 마디 동조하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진리의 말이라면 동조하지 않으며, 나아가 상대를 진리의 말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직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늘 선한 것만 보고 들으며 선한 것만 말하고 생각한다면 사단의 회가 교회 안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열린 해외 연합대성회



이슬람 국가를 뒤흔들며 중동 선교의 문을 연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2000년 파키스탄 라호르 시에서 열린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이 성회는 이슬람 국가에서 성회가 열렸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회교도들의 압력과 위협으로 주 정부의 갑작스런 집회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전혀 요동치 않고 찬양하며 믿음을 내보였다. 이어 하나님께서 예비한 S.K.트레슬러 장관(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을 통해 굳게 닫힌 철문이 열려 예정대로 성회가 진행됐다. 수많은 회교도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놓임받는 등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S.K.트레슬러(전 문화체육부장관) 우리 교회 방문



▶ 인도 기독교 사상 최대, 최다, 최고의 기록을 남긴 인도 연합대성회. 2002년 인도 첸나이 시 마리나 해변에서 열린 이 성회는 타밀라두 주 정부의 '강제 개종 금지 규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3백만 명이 참석했다. 소경이 보게 되고, 병어리가 말하며, 에이즈가 치료되는 등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힌두교도들이 치료와 개종하는 역사가 넘쳤다.



힌두교 국가 인도에서 연인원 3백만 명이 참석한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



간증 행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감사함이 넘치는 6월...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으로 나아가는 시간, GCN이 준비한 총명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세요.

주요프로그램

- ✓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 ✓ 특선영화 '뉘바디스 / 나사렛 예수'
- ✓ GCN TV설교 이수진 목사의 '팔복'
- ✓ 어린이 3D 애니메이션 '당나귀 울리의 모험'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1577-2073
MANMIN tv

“시공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에이즈(AIDS)를 치료받았습니다”

레오폴드 성도 (미국 뉴욕인태내셔널 만민교회)



2009년 6월부터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고 통증과 함께 온몸에 피부 종양이 생겼지요. 저는 치료받자 저명한 목회자들을 찾아가 기도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센트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폐렴과 에이즈’였습니다. 병원에서 강한 약물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은 더 악화되더군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요.

저는 ‘하나님이라면 치료해 주실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록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2년 전, 친구의 어머니가 전해준 패루와 뉴욕 연합대성회 DVD를 통해 이 목사님의 권능을 본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2009년 8월부터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만민 TV를 시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치 제게 하시는 듯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경청했습니다.

특히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며,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등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커졌습니다. 또한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기에(시 62:11) 분명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재록 목사님의 인터넷 설교를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점점 통증이 사라지며 몸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고, 제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2010년 10월 16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 그날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데 온방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 제 몸은 뜨거웠고 땀에 흠뻑 젖었지요.

다음 날,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모든 테스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즈와 폐렴 증세가 깨끗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저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 재검받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지요. 할렐루야!

요즘 뉴욕인태내셔널 만민교회(담임 심제임스 목사)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6년 된 건선 피부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유순주 집사 (12-2교구, 2-2여성교회)

피부각질이 온몸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열네 살, 한창 사춘기 때부터 건선(마른버짐) 피부염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예민한 학창시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수시로 각질층이 떨어져 몸 이곳저곳에 묻어 있었기에 늘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했지요.

부모님은 백방으로 다니시며 좋은 약을 구해 먹이셨지만 호전되는 듯싶다가 또 증상이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30대가 훌쩍 넘어서도록 여전히 안고 가야 할 숙제였지요.

건선 피부염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가려움증과 함께 각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에 잘 생기며

만성이 되거나 잘 치유되지 않고 쉽게 재발합니다.

2007년 봄이었습니다. 갑자기 건선피부염이 몸 전체에 퍼져 보기 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분적으로만 그랬는데 이번에는 온몸에 퍼져 심각했습니다. 온몸에 가슬가슬하고 작은 좁쌀 모양의 붉은 발진이 버짐처럼 퍼지면서 그 부위에 비듬 같은 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났습니다.

왜 갑자기 전신에 퍼졌을까? 질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 온다는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2007년 새해를 맞아 친정 식구들과 스키장에 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 그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했으니 이제 좀 쉬었다 하자’라는 생각이 틈났지요. 그 후 기도를 쉬게 되고, 구역장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미지근해져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갈음까 궁구했지요.

구역에서 심방과 전도에 힘쓰며 기도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염이 얼굴까지 퍼졌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곧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세 차례 기도를 받았습니다. 처음 기도를 받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도받은 뒤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4월 27일, 저는 세 번째 기도를 받고 26년 된 건선 피부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늦게나마 2009년 6월 은

사집회 시 단에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뒤 저희 가정은 화목해졌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십일조도 불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규현(8)이는 아동주일학교 찬양팀으로 딸 예은(6)이는 아동주일학교에서 각종 대회마다 상을 받아 영광 돌리고 있지요.

치료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뒤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요.” (왼쪽부터 남편 이정휘 집사, 규현, 예은, 유순주 집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2-5(3층) ☎042)527-2073, 010-7777-70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8277-799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9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시창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316-2046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상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3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삼도 1동 508-3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8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감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